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 무르익나?

“이대론 곤란” 공감... “어떻게?” 의견 분분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중앙종회(의장 법등)가 본격적인 해법 찾기에 나섰다.

7월 20일 중앙종회의원 60여명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불기2550년 중앙종회 의원연수를 열고 총무원장 선거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연수에 앞서 참가 스님들은 ‘대표선출 방식과 선거제도’를 주제로 송실대 강원택 교수의 강의와 종헌중법개정기초위원회가 지난 6월부터 7월 13일까지 실시한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강 교수는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을 위해 선거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참여의 폭을 확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앙종회 사무처장 법진 스님은 “설문조사 결과 추대-간선-직선제에 대한 중도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 방향을 쉽게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오후 연수가 본격 진행되면서 선거법 개정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향적 스님의 사회로 △현행제도 장단점 및 보완 방안 모색(종헌중법개정기초위원회 위원 광조 스님) △일정승탑 이상 직선제 도입에 대한 제안(장적 스님) △선거인단 확대를 통한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제안(도각 스님) △총무원장 추대제 도입에 대한 제안(민추본 본부장 명진 스님)을 청취하고 종합

현행 보완 · 선거인단 확대 · 추대제 등 거론
총회의의원연수서 “8월 임시총회 상정” 결의



7월 20일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연수에 참석한 의원들은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진지한 토론을 벌였다.

토론 등을 벌였다. 이날 광조 스님은 “선거비용 등 현실적 문제를 고려할 때 기존시스템을 유지하고, 향후 분사주지와 중앙종회의원들만 참여하는 선거인단 축소가 바람직하다”고 주

추대제 37% · 직선제 36% “팽팽”

본말사 주지 등 2334명 설문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어떻게 치러야 할까? 종헌중법개정기초위원회가 본말사주지, 중앙종회의원, 중앙종무기관 소인자, 선원 소인자, 교직자로 승탑 20년 안팎의 스님 2334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7월 13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결과, 조계종 스님들은 추대제(36.7%)와 일정승탑 이상 직선제(35.8%)에 대한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추대제와 직선제 외에도 현행보완을 요구

하는 목소리도 17.6%로 만만치 않았고, 선거인단 확대(3.8%), 선거인단 축소(3.2%)까지 포함하면 ‘추대-직선-현행간선제’에 대한 응답자들이 비율이 엇비슷해

한, 교직자로 승탑 20년 안팎의 스님 2334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7월 13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결과, 조계종 스님들은 추대제(36.7%)와 일정승탑 이상 직선제(35.8%)에 대한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추대제와 직선제 외에도 현행보완을 요구

했다.

반면, 장적 스님은 “설문조사에서 선거제도 변화야 한다는 중도들의 여론이 우세(72%)하고, 중도의 참정권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승탑 20년 이상 스님들이 선거에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이 크다”며 직선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각 스님은 “총무원장 선거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후보의 다면적 평가, 부정선거방지, 선거공영제 도입 등을 통해 어법한 선거를 치러야 한다”며 “구성원의 이해가 엇갈리고 선거에 익숙지 않은 중도의 관행을 고려해 전면적인 선거법 개정보다는 선거인단 확대를 통한 제도개선이 더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추대제와 관련해 발제자로 나선 명진 스님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총무원장은 선거과정의 논공행상과 지지자들에게 대한 배려로 여러 부작용을 낳는다”며 “파벌과 계파를 초월한 다양한 인재 등용과 화합된 분위기에서 중정에 전념할 수 있는 추대제가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토론이 끝난 직후 종회의장 법등 스님은 “8월 예정된 임시총회를 통해 오늘 토론한 내용을 중심으로 선거법 개정을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해 선거법 개정 논의를 계속 이어나갈 뜻을 밝혔다.

또 종회 연수예산 일부와 위원장 부위원장 등 중앙종회 의원 각출로 모은 총 1500만원 등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 성금으로 전달하기로 했다.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도심사찰 법당 증축 150평까지 가능

조계종 ‘도시공원법 시행령’ 근거 홍보활동

최근 불사(佛事)를 계획하는 서울 등 도심 전통사찰들이 도시공원법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등 관련 민원이 늘어나면서 조계종 기획실(실장 동선)이 지난해 12월 개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도시공원법 시행령)’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도시공원내의 건축물을 증축할 경우 건축 면적적용 기준시설의 면적의 범위 이내로 제한하였으나,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건축면적이 225㎡(약 70평)이내의 경우 450㎡까지 증축이 가능토록 해, 개정된 공원법

에 따라 이들 전통사찰들도 최대 150평까지 법당 증축이 가능해진다. 특히 ‘통사찰보존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전통사찰의 경우 경내에서의 탑·불상·종각 등 종교목적의 시설을 설치하는 공작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른 시설들과 달리 새로운 대지조성(사실상 신축)이 허용돼, 그동안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조계종 소속 111개 도심사찰의 불사추진에 숨통을 트어줄 것이다.

이처럼 도시공원법이 개정·시행된 것은 도시공원 내 종교시설로서만 간주되어오던 전통사찰을 ‘사찰

보존법’에 의한 보호대상으로 공공성을 인정한 결과다.

조계종 기획실 관계자는 7월 18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도시공원법 시행령)”이 지난해 12월 개정 공포돼 도시공원 내 전통사찰의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이 훨씬 용이해졌지만 실제 이에 대한 사찰들의 이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해당 사찰관계 법령에 대해 잘 인지해 역사·문화적 거점으로서 면모를 일신하고 지역주민의 정신적 귀의처로서 역할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용수 기자

국제포교 전담 기구 설치

조계종, ‘국제포교진흥위원회’ 입법예고

조계종 포교원은 7월 21일 종단 홈페이지를 통해 ‘국제포교진흥위원회’를 설치해 체계적인 국제포교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국제포교진흥위원회 제정을 입법 예고했다.

종단 차원에서 국제포교와 관련한 부서를 설치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자·제도적 틀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종단 사상 처음이다. 이에 따라 국제포교 활성화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제포교진흥위원회는 △국제포교 정책수립 △국제포교 전문기(통역·번역) 양성 △해외사찰 지원과 운영 △후원조직원 관리 및 후원금 관리 등을 주요사업으로 한다.

국제포교진흥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해외포교 경험과 역량이 있는 조계종 소속 스님으로 포교원장이 위촉한다. 위원은 해외포교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자 중 위원장 추천으로 포교원장이 위촉한다.

국제포교진흥위원회는 위원장이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소집하며, 재정은 종단 보조금과 해외포교사업과 관련된 발생한 수익금, 각종 후원금 등으로 충당한다. 입법예고기간은 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다.

포교원측은 “현재 국제포교와 관련한 중립성이 없어 관련 조항을 정비해 체계적인 국제포교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입법 예고한 것”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남동우 기자

문성현·권영길 대표 등
지관 총무원장 예방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를 비롯한 임원단이 7월 20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하고 오찬을 함께했다.

지관 스님은 “노동자들의 주름이 퍼질 수 있으려면, 국회에서 민주노동당의 역할이 제일 많을 것 같다”며 “국민을 위한 국정을 펼치라”고 당부했다.

이날 문 대표와 함께 지관 스님을 예방한 권영길 의원대표는 “이번 수해로 국가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회의원들의 책임의 무겁다”고 말했다. 예방에는 문성현 대표, 권영길 의원대표, 최순영 의원, 이용대 정책위원장이 함께 했다.

이에 앞서 지관 스님은 18일에도 김두관 前 행정부처장관의 예방을 받고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국현 등을 청취했다.

김 前 장관은 김근대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고 있는 열린우리당에 대한 현황을 설명하고 7·26 재보궐 선거에 불교계의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망갈라 삼마라위라 스리랑카 외무장관(18일)과 대만 대표부 천인추오(陳永綽) 대사(20일)도 신임인사처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하고 환담을 나눴다.

조용수 기자

고침 본지 지난호 <587호> 1면 10쪽을 전달받은 단체장 가운데 ‘박희현 남해군수’를 ‘박희현 해남군수’로 바로잡습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학범 편집국장 : 위영란 인쇄인 : 노진환
110-030 서울특별시 중구로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FAX (02)737-0698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광고국 (02)2004-8213-7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FAX (02)737-0696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백양사 올원 정식 인가

조계종 교육원은 7월 21일 회의를 열고 고불총림 백양사 올원(올주 해권을 정식 인가했다. 이에 따라 백양사 올원은 만안·서운 스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올매를 계승할 전기를 마련했다.

백양사 올원은 지난 4월 산내암자 인 청류암에 개원했으며, 강원을 잘

업한 비구나 선원에서 일정 안거를 거친 비구 가운데 약간 명을 선발, 운영할 예정이다. 공양주를 별도로 두지 않고 편의제품을 최대한 자제하는 등 계율에 담긴 정신을 최대한 생활로 옮긴다는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또 경주 불국사 중강현화, 합천 해인사 감사 현림 스님 교직자 자격을 인정했다.

남동우 기자

중단협, 각 종단 추천 스님·교수 등

조계종 비구나 상임감찰 정현 스님을 비롯한 각 종단 스님과 교수 등 21명이 불교인권지킴이로 나선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지관)는 7월 20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제3차 임시이사회를 열고 이날 각 종단의 인권위원 21명을 새로 위촉했다. 중단협은 이날 △진각종 새 총무

부장 회성 정사의 상임이사 선임을 승인하고 △제9차 한중일 불교우호 교류대회 예산 및 참가인원 배정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대책 마련 및 지원 △제9차 한중불교수행체 협교류사업 진행현황보고 △북녘동포 생활용품 공동지원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조용수 기자

동신대학교 차(茶)학과 안내

1. 학과소개

최근 ‘웰빙’이라는 식품의 안정성에 대한 갈망, 건강지향, 문화지향, 편의성추구의 소비자 트렌드에서 볼 수 있듯이 차 문화와 산업이 부가가치가 높고 유망한 산업분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친환경 유기농 농법에 의한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품질 개량, 선진 가공기술, 글로벌 마케팅과 체계적 유통에 의한 명품 브랜드의 개발, 차 효능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여 2007학년도부터 차(茶)학과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산학협력에 의한 실무 중심 교육과정과 중국 절강대학교의 학점교류에 의한 복수학위제(추진중), 국제 학술 세미나, 국제 차 문화 체험 행사를 통한 국제적 마인드를 갖추실 수 있게 됩니다.

2. 교육목적

본 학과는 차(茶)와 관련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이론과 실험실습을 통하여, 차의 품종을 개발하고 차 산업화를 선도하며 차(茶) 문화와 관련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 인력의 양성을 지향한다.

3. 교육목표

- 차(茶)의 제배 및 차 문화에 대한 기본지식 습득 - 국제경쟁력을 갖춘 차(茶)전문 인재 및 지도자 육성
- 차(茶)와 관련된 과학적이고 학술적인 체계 확립 - 차(茶)와 관련된 과학적이고 학술적인 체계 확립
- 육종개발을 통한 명차 생산 및 차(茶) 품종의 자원화 - 제다기술 개발 및 명차(茶) 생산과 품질관리사 배양

4. 교과과정

- ◆ 1,2학년 -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및 정보전산 교육, 차의 역사, 다도, 철학, 전통예절, 행다법 등 기본 교양교육
- 차문화 고전연구, 차 제배 및 제다 등에 관한 기초이론 교육
- ◆ 3,4학년 - 육종 및 생산, 유통, 마케팅, 차 문화기획 등 차에 관련한 전공교육
- 품질평가학, 제다학, 품종개발학, 다예학, 차나무재배학, 차문화사
- 중국 절강대학교 다학계(茶學系)의 교류 협력(추진중)

5. 교육환경

- ◆ 교내 : 삼매원(전통예절교육관), 산업용가속기이용생물연구센터(RRC), 생물자원산업화지원센터(BT)의 품종 개량실, 종자 은행, 의과대학, 한약재산업학과
- ◆ 교외(협력시설) : 영농조합지리산명차원, 초의선원, 초의선사기념관(무인군 삼함평 소재), 보성군차영농조합

6. 자격증

- ◆ 다도사범증 기사 1, 2급(추진중), 제다사, 품종개발사, 품질평가사, 다예사

7. 졸업후 진로

- ◆ 기업체 및 학교 다도예절 전문강사 (유동업계, 백화점, 호텔 등의 매니저)
- ◆ 차 문화 행사 연출 기획자, 차 요리 전문가, 차 미용 전문가 ◆ 대학원 진학
- ◆ 국내외 관련기관 및 식품가공 연구소, 식약청 등의 공무원 취업
- ◆ 국제 차 전문가, tea 마케터, tea 매니저, 차 브랜드개발, 차 비즈니스리더, 차 무역업
- ◆ Tea shop 운영, tea consulting, tea house ◆ 차 산업 전반에 대한 창업

◆ 입학안내 : 동신대학교 입학관리처 ☎ 061-330-3333 www.dsu.ac.kr

당신에게 연꽃향기를 전해드립니다

혜정정사의 밀교수행강좌 모음집



불교TV에서 방영됐던 혜정 정사의 밀교수행강좌 26회분 모음집입니다.

컴퓨터로 볼 수 있고 일반 DVD로도 볼 수 있습니다.

DVD로 볼 수 있는 것은 압축한 시디 1장입니다.

모두 10장이 한 세트에 되어 있습니다.

100세트 한정으로 제작해 보급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배송료를 포함해서 6만원입니다.

국민은행(예금주 : 최충용) 계좌번호 661725-89-144651로

송금하시고는 반드시 전화 031)254-2585로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송금확인과 주소확인이 되는 즉시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